비교문화연구 제55집 (2019.6) pp.189~216

라이프니츠 철학 전통 속의 디드로

이 충 훈
(한양대학교 프랑스학과 부교수)

국문초록

자연의 모든 현상들이 연속성을 갖고 서로 연쇄되어 있다는 라이프니츠 철학의 기본 사상이 18세기 사상과 문학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모든 지식이 연쇄되어 있으며, 새롭게 발견된 지식들이 그때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지식들을 자극하고 창출하여 비어 있던 연쇄를 채우게 된다는 그의 낙관적 인식론이 디드로가 주도한『백과사전』의 체계와 이념에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디드로는 라이프니츠의 수학과 형이상학의 논의보다는 당대 실험과학과 자연사에 가졌던 관심과 새로운 해석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디드로는 자연에는 도약이 없고, 모든 존재는 단계적으로 연쇄되어 있으며, 동일한 구조와 형태를 가진 두 개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라이프니츠의 생각을 자신의 과감한 무신론적 유물론 체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비록 디드로가 동시대 자연사와 자연철학에서 최종목적과 전능한 창조주의 손길에 대한 경탄을 배제하고자 노력했지만 초기저작부터 후기저작에 이르기까지 라이프니츠 철학의 핵심 사상들은 여전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디드로가 지난 세기 동물 발생의 지배적인 이념이었던 배아의 선재이론을 공상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모호한 개념을 버리지 못했던 뷔퐁과 모페르튀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알브레히트 폰 할러, 샤를 보네, 장 바티스트 로비네와 같은 동시대 라이프니츠주의자들의 체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이유를 밝혀보고자 했다.

디드로가 라이프니츠주의자들로부터 끌어내고자 했던 것은 광물부터 고등동물에 이르기까지 자연에서 형성된 모든 유기체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대신 이들의 긴밀한 연쇄를 강조했다는 점이며, 이로써 디드로는 라이프니츠가 사유한 유기체의 조직 원리는 물론 유기체의 변형과 성장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연 속에서 발견되는 단일성과 다양성의 역동적 관계와 종과 계를 구분하는 인위적인 경계를 의심하고자 한 것이다.

www.kci.go.kr

주제어 : 디드로, 라이프니츠, 루이 부르게, 알브레히트 폰 할러, 샤를 보네, 장 바티스트 로비네, 전성설, 후성설, 존재의 연쇄, 불가식별자 동일성

Ⅰ. 서론

많은 디드로 연구가들은 복잡다단한 작가의 사상 속에서 일관성을 찾는다. 그의 사상적 바탕이 무신론적 유물론에 있다는 점만은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그의 철학적 토대를 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로 대표되는 고대의 원자론에서 수월히 찾을 수 있다는데 이견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디드로의 유물론과 무신론이 동시대 철학자들인 홉스, 뷔퐁, 라메트리, 모페르튀등에 대한 일방적인 선호로 귀결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디드로가 영국철학자들인 섀프츠베리, 버클리, 흄의 체계를 높이 평가하는 반면 특히 과감한 유물론으로 악명이 높았던 당대의 스피노자와 라 메트리의 체계를 엄중히 반박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디드로의 초기 철학 저작은 이러한 복잡한 사상적 영향관계 때문에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간편한 입장은 디드로가 당시 검열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기대고 있던 과감한 철학 체계를 은폐했다는 것이다.[1] 그러나 이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장이며, 특히 디드로가 편집인으로 일했던『백과사전』의 이념과 체계가 베이컨과 라이프니츠를 기초로 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 1753년에 디드로가 익명으로 출판한『자연의 해석에 대하여』[2]에서는 그의 복잡다단한 초기 사상이 파노라마처럼 전개되어 있다. 그

1) 디드로가 스피노자에 대한 무신론적 유물론 사상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는 폴 베르니에의 입장이 대표적이다. Paul Vernière, *Spinoza et la pensée française avant la Révolutio*n, PUF, 1954.

2) 이 저작은 이듬해 수정과 보완을 거쳐 역시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자연의 해석에 대한 단상들』로 증보판을 낸다. 이후 디드로의 저작은 Diderot, *Œuvres complètes*, éd. H. Dieckmann, Jacques Proust et Jean Varloot, Paris, Hermann에서 인용할 것이며, 이를 DPV로 약(略)하고 권과 페이지만 표시하기로 한다.

www.kci.go.kr

렇지만 베이컨의 사상을 동시대에 새로이 진척된 철학과 과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 저작에서 디드로가 진심이든 아니든 자신의 체계가 스피노자, 라 메트리, 뉴턴의 체계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니, 연구자들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디드로 연구자들은 라이프니츠에 대한 작가의 관심과 영향 관계에 새로이 주목하고 있다. 물론 디드로는 라이프니츠가 앞당긴 수학과 기하학의 영역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다. 디드로는『백과사전』에 실은「라이프니츠주의」항목을 제외한다면 명시적으로 라이프니츠 철학을 전면에 내세운 적이 없다. 그러나 디드로의 저작에서 라이프니츠에 대한 참조는 적지 않다. 일견 뷔퐁의『자연사』의 적극적인 옹호와 수용으로 해석되곤 하는『자연의 해석에 대한 단상들』에서도 라이프니츠의 이름이 직접 거명되지 않았다 뿐, 이 독일 철학자를 암시하는 대목은 여럿 눈에 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책의 6절에서 "철학 언어는 언제나 완성이 될 것이며, 설령 완성이 된대도 그 언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이나 될까?"[3]라는 언급이다.『자연의 해석에 대한 단상들』의 2판을 출간한 뒤 1년 뒤인 1755년에『백과사전』의「백과사전」항목에서 '참조기호(les renvois)'를 통해 지식의 연쇄(l'enchaînement des connaissances)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할 때도 역시 그가 라이프니츠의 철학에 가졌던 깊은 관심이 드러난다. 라이프니츠에 대한 디드로의 참조는 이미 1740년대 그가 섀프츠베리의『미덕과 공덕의 시론』을 번역하고 여기에 붙인 한 주석의 내용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 이 진리는 철학이 내딛은 첫 번째 발걸음이며 그것도 거인의 발자국이었다. […] 우리가 자연을 더 멀리 바라볼수록 자연에서 단일성을 보게 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수많은 부분들과 전체의 규모에 비례한 지성과 경험일

3) DPV t. IX, p.32. 디드로는『라이프니츠주의 Leibnitzianisme』항목에서 "라이프니츠는 모든 국가를 교류하게 할 수 있는 철학적 언어를 기획해 보았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지는 않았다. 그는 자기와 동일한 관점을 가졌던 자기 시대의 학자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진정한 목적에 다다르지 못했음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www.kci.go.kr

>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이러한 단일성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어떤 이유로 단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는 것일까?[4)]

확실히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라이프니츠가 『인간지성에 대한 새로운 시론』에서 "단번에 생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연에는 비약이라는 것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말로 내가 주장하는 위대한 원칙이자 가장 훤히 밝혀진 한 가지이다. 나는 이를 연속성의 법칙이라고 부른다"고 했던 이념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해석에 대한 단상들』의 57절에서 디드로가 기꺼이 라이프니츠의 불가식별자(不可識別者) 동일의 원리(le principe des indiscernables)을 받아들이는 것도 라이프니츠에 대한 디드로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잘 보여준다.

> 나무 전체에서 똑같은 초록색이 '뚜렷이' 두드러지는 두 잎이 없으리라는 점을 확신하게 될 사람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정확히 그러한 색의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내게끔 함에 틀림없는 잘 알려진 수많은 원인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라이프니츠의 생각을 과장하는 일이 없이, 물체들이 놀랍도록 많은 원인들과 결합되어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을 이루는 상이한 여러 지점을 통해 자연에는 '절대적으로' 동일한 초록색을 가진 두 풀잎은 존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으리라고 주장할 사람이라면 그 격언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모든 존재는 눈에 띄지 않는 미세한 차이들을 차례로 거치면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면,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으니 아주 오래 전에 존재했던 형상들과, 오늘날 존재하는 형상들과, 수많은 시간이 흐른 뒤 존재하게 될 형상들 사이에 결국 가장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시간이 아니겠는가.[5)]

그러나 이러한 라이프니츠의 몇 가지 중요개념이 디드로 저작 전반에 반

---

4) DPV t. I, p.313. 자크 프루스트 역시 디드로와 라이프니츠의 긴밀한 영향관계를 확신하고 있다. "*L'Essai sur le mérite et la vertu* proposait déjà la vision très leibnizienne d'un monde où les individus s'intègrent dans des systèmes particuliers, eux-mêmes intégrés dans des systèmes plus vastes, et ainsi de suite, jusqu'au système unique qui embrasse tout"(Jacques Proust, *Diderot et l'Encyclopédie*, Paris, Albin Michel, 1995, p.406).

5) DPV t. IX, pp.91-92.

www.kci.go.kr

복된다는 사실로 두 사람의 직접적이고 일방적인 영향관계를 단언하기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프랑수아 페팽은 "겉보기에 가까워 보이기는 하지만 디드로는 변이며, 지식과 지각의 기준들의 다양성이라는 점에서 라이프니츠와 분명히 갈라진다"[6]고 단언한다. 페팽에 따르면 디드로와 라이프니츠는 단일성 속의 다양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같은 의견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디드로는 '존재론적인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라이프니츠의 입장과 명백히 선을 긋는다는 점에서 라이프니츠의 적극적인 옹호자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라이프니츠 철학에 대한 디드로의 참조를 우연적이거나 일화적인 것으로 축소할 수 있을까? 적어도 지난 세기 철학과 과학 영역에서 지배적이었던 수학과 기하학의 '유행'에 항상 비판적이었던 디드로는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에서 어떤 입장에 동의하고, 또 어떤 다른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일까? 본 연구는 디드로가 라이프니츠에 관심을 기울였고, 자신의 철학적 이론과 실천의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로 라이프니츠를 참조하고 있다면 그것은 수학과 형이상학의 영역이 아니라, 당대 실험철학의 영역에서였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라이프니츠가 특히 당대 화학, 의학, 생리학의 논쟁에 깊이 관여하면서, 형이상학의 틀에서 벗어나 자연학의 인식론적 가능성을 탐색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이 독일 철학자에 대한 디드로의 관심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다. 특히 라이프니츠는 존재의 연쇄(la chaîne des êtres)의 개념을 통해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를 뚜렷한 경계를 내세워 엄격히 구분했던 자연사의 전통과 갈라서고 있다. 그는 자연의 유기체들이 맺고 있는 '연속성'과 점층적이고 연속적인 변화(évolution)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18세기 진지한 자연사가들의 지지를 받았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18세기 자연사와 자연철학의 논의를 살피며 라이프니츠 철학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며, 디드로가 이러한 논의를 자신의 사상을 담은 저작에서 어떤 의미로 수용했는지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

6) François Pépin, *La Philosophie expérimentale de Diderot et la chimie. Philosophie, sciences et arts*, Paris, Classiques Garnier, 2012, p.242.

www.kci.go.kr

II. 라이프니츠주의 자연사 : 루이 부르게의 경우

먼저 우리가 살펴볼 라이프니츠주의 자연사가는 스위스 뇌샤텔 출신의 루이 부르게(Louis Bourguet)이다. 원래 프랑스 출신이었으나 낭트칙령 철회 이후 종교의 자유를 찾아 뇌샤텔로 이주한 부모 밑에서 자랐고, 뇌샤텔에서 철학과 수학 교수로 가르쳤다. 그는 1706년부터 라이프니츠가 사망하는 1716년까지 서신교환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는데, 편지의 주제는 주로 동시대의 동물발생이론과 유기체론이었다. 그가 1729년에 출간한『소금과 수정의 형성과 식물과 동물의 유기적 메커니즘의 발생에 대한 철학적 편지 *Lettres philosophiques sur la formation des sels et des crustaux, et sur la génération et le Mechanisme organique des plantes et des animaux*』에 라이프니츠의 영향이 깊게 새겨져있다. 저작의 제목에서 보듯 부르게는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의 모든 유기적 존재가 어떻게 형성되며, 이들 존재가 어떤 '연속성'을 띠고 있는지에 주목했다. 이 책이 출간되기 전인 1714년 3월에 라이프니츠가 부르게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이 독일 철학자가 배아를 발생의 기본 단위로 보면서, 발생과 발육을 이 배아에 다른 부분들이 삽입성장(intussusception)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이 뚜렷이 드러난다.

> 나는 통상 우리가 자연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할수록 자연현상에 더욱 익숙해지고, 우리의 의견이 더욱 폭넓게 수용될 수 있으며, 더없이 높은 학식을 가진 분들은 정당하게 동물이 남긴 유해며 다른 물체들이 남긴 잔해들이 가라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선행된 것이 없고, 목적도 없고, 배아도 없이 존재하는 유기체들이 움직이지 않는 원형으로서 진흙이나 돌 가운데에 있다가 무언지 모를 가소성을 통해 모든 자연법칙 외부에서 생겨난다는 점을 쉽게 확신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슨 방사형을 이루는 물체들이며, 수정, 석류석, 보석, 형석(螢石)과 다양한 다른 광물들이 보여주는 규칙적인 다각형들이 아니며, 육각형의 눈송이, 꿀벌이 짓는 벌집, 황산과 명반(明礬), 보통 소금과 질산, 인광석, 안티몬과 철의 혼합물에서 비롯하는 것도 아닌 까닭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갖지 않은 자연이 그려내는 기하학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결정 작용에서처럼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식물과 동물들이 갖는 훨씬 정교

www.kci.go.kr

> 한 구조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가지 검토를 주의 깊게 해보자면 관찰이 확장될 수 있는 만큼 그 구조는 이미 형성이 끝난 어떤 유사한 존재가 만들어내는 배아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패의 형성력과 모호한 다른 발생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됐든 그저 그릇될 뿐 아니라 조잡하게 고안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7]

라이프니츠는 부르게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기체의 형성에 가소성을 가진 힘이 작용한다는 입장에 반대하며, 어떤 유기체도 무에서 비롯되는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다시 말하면 수미일관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어떤 발생의 기본 단위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물질이 모두 규칙성을 띠고 반복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이렇게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물질은 모두 유기체로 간주될 수 있고, 유기체의 형성은 어떤 외부의 힘이나, 무엇으로 규정될 수 없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유기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힘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라이프니츠의 격려와 도움에 힘입어 부르게는 이미 형성을 끝낸 배아로부터 유기체가 형성되는 복잡한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복잡성의 정도는 다르지만 수정의 결정 작용부터 식물과 동물에 이르기까지 유기적 존재들은 점진적으로 서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그 원리로 삼고 있다. 요컨대 자연의 물질은 모두 유기적이며, 발생은 배아에 다른 물질들이 연속적으로 덧붙는 과정에 다름 아니며, 이를 구성하는 힘은 유기체의 메커니즘(mécanisme organique)이다.

> 사실 세 번째 편지에서 식물과 동물이 갖는 배아들의 형성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깊이 발전시켰으니, 이 유기체들이 비유기적인 입자들의 결합으로 통해 형성될 수 있다고 가정하거나, 이미 유기적인 조직을 갖춘 입자들이 기계적으로 결합된 결과일 수 있음을 가정한다면 배아들의 형성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수정과 질산의 육각형이 무한한 작은 삼각형 물질들의 형태인 것처럼, 명반의 팔각형 형태는

7) Leibniz, *Protogoea*, § 28, Toulouse, Presses Universitaires du Mirail, 1993, pp.94-97.

www.kci.go.kr

> 피라미드 모양의 입자들로 결합되어 있다. 소금의 사각형이나 황산염의 평행사변형 형태도 동일한 형상의 분자들의 결합에서 나온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배아들을 설명하는 라이프니츠의 표현을 빌자면 신의 배질국재(胚質局在)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즉각적으로 신에게서 비롯하는 것이기 때문이다.[8]

부르게는 광물계의 결정작용이 이미 존재하는 하나의 배아의 주위에 기계적인 방식으로 여러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결합하면서 성장해나간다는 점에 주목하는 한편, 식물 및 동물의 발생 역시 광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라이프니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부르게는 운동의 능력을 가진 물질과 운동의 능력을 갖지 못한 물질의 구분을 폐지한다.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존재들을 구성하고 성장케 하는 모든 입자들의 결합과정은 미리 존재하는 배아와 여기에 덧붙는 입자들의 규칙적인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수정의 결정화과정이 항상 규칙성을 띠는 것처럼, 식물과 동물의 배아가 성장하는 과정도 항구여일한 규칙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점이야말로 천지창조를 주재한 신의 손길이 그가 만든 세상에 연속적으로 수미일관하게 나타난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신의 섭리와 자유를 주장하는 라이프니츠와 부르게는 이 시기 부상하고 있던 후성설 입장에 반대하여 암컷의 난(卵)속에 이미 완전히 형성된 배아가 갖추어져 있다는 배아의 선재이론과, 그 배아 속에는 과거는 물론 미래에 발생할 개체들이 무한히 접혀 있다는 배아 조립체설을 옹호하고 있다.

그렇지만 17세기의 전성설의 체계에는 생명의 발생과 관련하여 여전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남아 있다. 발생이 선재하는 배아가 외부의 물질을 수용해나가면서 성장하는 과정이라면, 그 과정에서 태아가 양쪽 부모를 모두 닮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비정상(anomalie)의 존재가 드물지 않게 출현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

8) Bourguet, *Lettres philosophiques sur la formation des sels et des crystaux*, Amsterdam, François L'honnré, 1729, p.58.

www.kci.go.kr

> 발육과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려면 최초의 기관들이 인위적인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그 기관들이 측면으로, 길이로 서로 밀어 붙이는 새로운 분자들과 점점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 아울러 체액은 갑자기 들이닥치는 기관들을 변형시켜, 이러한 방식으로 동물의 크기 전체가 각각의 동물 종과 그들이 갖는 상이한 부분들이 결국 자연스럽게 귀결하는 정도에 이를 때까지 동시에 증가하게 된다. 식물이나 동물이 갖춘 모든 부분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그 부분들이 커질 때 내가 말한 방식으로 커지지, 다른 방식으로 커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발육은 기관들과 그 기관 내부를 순환하는 체액들의 상호 운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새로운 물질이 추가되면서 내부에 들어 있던 기관들을,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부에 응축되어 있던 기관들을 조금씩 밀어낸다. 그런데 기형의 원인이 되는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최초의 배치는 항상 그대로 남는다. 그런 사고들이 괴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다양한 괴물의 종류는 유기적인 메커니즘으로 간단히 설명될 수 있다.[9]

위의 인용문에서 부르게가 '최초의 기관(les organes primitifs)' 및 '최초의 배치(arrangement primitif)'를 언급할 때, 그는 선재하는 배아가 동화과정을 거쳐 성장해 나가면서 그것이 원래 가졌던 형상 및 구조로부터 변화를 겪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부르게와 라이프니츠에게 배아는 발생에 앞서 이미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발육하는 방식은 어느 개체에서나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니라, 발생의 조건에 따라 더 크거나 더 작은 변형을 겪을 운명이다. 그 변형이 동일한 종의 개체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며, 그 변형의 정도가 극단적으로 큰 존재를 괴물이라고 부를 수 있다. 유기체의 가장 단순한 존재를 배아라고 한다면 그것은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모나드와 다른 것이 아니다. "자연에는 서로 완전히 동일하고 내적인 또는 내적인 규정성에 근거한 차이가 발견될 수 없는 두 개의 존재는 결코 존재하지 않으므로"[10] 이들 배아는 결국 "변화하도록 되어 있(sujet au changement)"[11]고 그런 까닭에 자연에는 서로 완전히 동일한

9) Bourguet, *Lettres philosophiques*, *op. cit*., pp.152-153.
10) Leibniz, *Monadologie*, § 9, in *Discours de métaphysique, Monadologie et autres textes*, éd. Michel Fichant, Gallimard, Folio classique, 2004, p.221.
11) *Ibid.* § 10, p.221.

www.kci.go.kr

두 개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Ⅲ. 할러의 생리학 이론과 보네와 로비네의 할러 체계 수용

1749년에 뷔퐁이 그의『자연사』첫 세 권을 출판한 이후, 제네바 출신 자연사가이자 생리학자 알브레히트 폰 할러는 1751년에 뷔퐁의 후성설과 자연발생설 이론을 근본적으로 반박하는『뷔퐁의 발생이론에 대한 성찰』을 내놓는다. 할러의 저작을 통해 배아의 선재이론과 후성설의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사실 할러는 1747년에 라틴어로 출판한『생리학 개요』에서 신중하게 후성설을 받아들였던 바 있다[12]. 그러나 그는 뷔퐁의 유기분자(les molécules organiques)이론과 내적주형(le moule intérieur) 개념을 비판하며 이내 배아의 선재이론으로 돌아간다. 무엇보다 뷔퐁이 양성의 생식액에 농축되어 있다는 입자들의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 여전히 모호한 채로 남아 있는 '인력(force attractive)' 혹은 '친화력(affinité)'을 도입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 아울러 뷔퐁은 이들 입자의 결합이 고정된 종(種)을 반복적으로 형성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내적주형이론을 고안했는데 이는 종의 내부와 외부에서 각각의 개체들이 서로 차이를 갖게 되는 역동성을 설명하는데 부적합했다.

> 물질을 형성하는데 적합한 힘이 물질 내에 있다고 해도 물질이 그 힘을 맹목적으로 따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힘들은 영원한 경계 내부에 갇혀 있으며, 기계적으로 동등한 존재들이 아니라, 유사한 존재들을, 위반할 수 없는 설계도에 따라 이미 규정되어 있던 존재들을 항상 완벽하게 형성한다. 그런데 이때 존재들의 다양한 형성은 맹목적으로 유효

12) "La conception a lieu, lorsque l'œuf a été changé par la semence, de sorte qu'il commene à se former un nouvel homme dans cet œuf, soit que ce soit un ver qui s'y introduise alors & qu'il y soit un nouvele hôte plein de vie, ou qu'une vapeur volatile qui s'exhale de la semence du mâle excite un nouveau mouvement dans les parties liquides de l'œuf ; car plusieurs choses s'opposent à l'hypothèse qui admet toutes les parties formées dans l'œuf, & jamais on n'a vû un fœtus dans un œuf de vierge"(Haller, *Eléments de Physiologie*, § DCCCXXVIII, trad. Bordenave, Paris, Guillyn, 1769, p.281).

www.kci.go.kr

> 성을 갖는 물질로부터 모든 구속을 배제하는 것이다. […] 구조가 완전히 닮은 두 명의 인간도, 두 마리의 동물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의 주요 부분들이 완벽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해도 말이다. […] 자연이 우월한 지혜를 가진 존재가 다루는 도구가 아니었다면 보편적인 설계도는 물론 인간 신체의 작은 부분들에서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처음의 분류에 이르지 않고서도 마지막 분류에는 항상 다양성이 지배적이다.[13]

할러의 목표는 자연의 발생과정이 신이 애초에 마련해 놓은 단일하고 불변하는 설계도를 따르면서도 유기체 각자는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차이로부터 확실히 구분되는 큰 차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발생과정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를 도입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형으로서의 배아가 미리 존재하고, 이것이 실제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선재하는 배아에 점진적인 방식으로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 내가 보기에 태아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부분들이 한결 같이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편이 그럴듯하다. 그 부분들이 성체(成體)에서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분명하고 미리 준비된 원인들이 이들 부분 중 어떤 부분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다른 부분의 성장은 억제하는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상황이 변화되면 예전에 반투명상태였던 기관들이 유체와 점액 상태에 있다가 점도를 얻으면서 눈에 보이게 된다. 그러면서 결국 배아와는 아주 다른 동물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동물 내부에는 배아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어떤 부분도 존재하지 않는다.[14]

할러는 지난 세기 윌리엄 하비가 주장한 '살아있는 점(les points vivants)'이 출현하는 것으로 심장이 제일 먼저 나타나고 그것으로부터 신체의 모든

13) Haller, *Réflexions sur le systême de la génération de M. de Buffon*, Genève, Barillot & fils, 1751, pp.60-61.

14) Haller, *Sur la formation du cœur dans le poulet*, t. II, Lausanne, Marc Michel Bousquet, 1758, p.186.

www.kci.go.kr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조립되어나간다는 후성설에 문제를 제기한다. 비록 살아있는 점이 나타나기 전에 수정된 난에는 육안으로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투명한 액체뿐이지만, 이 투명한 액체는 생명의 흔적이 전혀 없는 '무'의 상태가 아니며, 이것이 반투명한 점액 상태로, 불투명한 상태로 차례로 변화(évolution)해 나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할러가 언급한 '변화'는 다음 세기에 등장하는 진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이다. 그는 이 변화의 과정을 하비처럼 단절되고 불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이행의 과정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할러에게 투명성은 무가 아니라,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배아가 내포되어 있는 여전한 생명의 상태에 다름 아니다. 모든 생명체의 발생은 무에서 유로의 이행이 아니라, 투명성에서 불투명성으로, 다시 말하면 관찰자의 눈으로 지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각할 수 있는 상태의 이동이며, 애초에 이미 형성되었던 배아가 변형과 수정을 거쳐나가는 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한다.[15] 여기서 할러가 뷔퐁의 유기분자와 내적 주형의 가설을 논박한다면, 뷔퐁의 체계는 동물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뷔퐁은 발생의 규칙성과 고정된 종의 경계를 확보하기 위해 내적주형이라는 증명하기 어려운 개념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할러가 보기에 내적주형의 이론은 입자들의 결합을 가능케 하는 친화력만큼이나 모호하고 부적절한 것이다. 할러는 비가시적인 것의 가시화 과정을 내세워 뷔퐁이 극복했다고 생각한 배아의 선재이론을 다시 도입한다. 이미 난 속에 존재했던 생명의 기본 원리로서의 배아가 발생 과정을 통해 성장과 발육이 이루어지며, 이 발육의 과정은 투명성에서 불투명성으로의 이행에 다름 아니다.

> 다음에 나는 태아를 식초에 담가보았다. 식초를 사용하면 태아의 체액이 불투명해진다. 막(膜)을 더는 투명하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부리 모양의 소포(小胞)에서 내려오면서 결국 날개가 생겨나는 과정이 이보다 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투명성은 대단히 섬세한 것이므로 식초가 작용하더라도 심장은 그 사이에서 비쳐보였고, 원뿔형 비슷한 심실, 심

15) Voir Amor Cherni, *Epistémologie de la transparence*, Paris, J. Vrin, 1998, p.180.

www.kci.go.kr

> 방, 심장과 막 속에 들어 있는 공간을 완벽하게 구분해 냈다. 막은 심장과 그 공간 사이에, 머리와 심장 사이에 존재했다.[16]

할러의 실험은 그때까지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신체의 부분들이 이미 투명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그에 따르면 이 사실은 배아의 선재이론이 옳다는 점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모페르튀와 뷔퐁의 후성설을 논박하고자 했던 역시 스위스의 자연사가 샤를 보네는 즉시 할러의 이 실험 결과를 자신의 저작에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그는『유기체에 대한 고찰』에서 후성설주의자들의 이론을 "공상적romanesque" [17]인 것으로 일축한다. 보네에 따르면 부모의 생식액에 미래의 신체 기관이 농축된 입자가 존재하고, 이들 입자가 친화력이나 인력의 힘으로 서로 결합한다는 뷔퐁의 주장은 합리적으로 보이기는커녕 "경이"[18]로운 일이라고 해야 한다. 하비의 '살아있는 점'도, 뷔퐁의 유기분자 이론에도 만족할 수 없었던 보네는 소위 유기분자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무한히 접혀 있던 기관들이 성장을 시작하는 배아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 나는 하나가 다른 하나의 내부에 계속 포함되어 경이롭게 이어져 있는 이 유기체들을 그만큼의 작은 세계로 보고 싶다. 나는 그 유기체들이 점차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고, 어떤 비율에 따라 감소하다가 결국 캄캄한 어둠 속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본다.[19]

여기서 보네가 제시한 내부에 무한히 접혀져 있는 유기체에 대한 생각은 두말할 것 없이 라이프니츠에게서 차용한 개념이다. 자연에는 종과 계의 경계가 없이 점차 나로부터 멀어지는 유기적인 개체들로 충만해 있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자연사의 영역에서 새로운 관찰과 발견이 축적되어감에 따라 우리는 "중간적 존재(êtres mitoyens)"[20] 또는 "매개적 개체(indivudus inter-

16) Haller, *Sur la formation du coeur dans le poulet*, t. II, *op. cit*., p.165.
17) Charles Bonnet, *Considérations sur les corps organisés*, § XCIII, *op. cit*., p.69.
18) *Ibid*., § CLVIII, p.123.
19) *Ibid*., § CXXVIII, p.88.
20) Bonnet, *Contemplation de la nature*, t. II, Hambourg, 1782, p.192.

www.kci.go.kr

médiaires)"[21]에 대한 지식을 갖추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자연은 "하나의 생산에서 다른 생산으로 점진적으로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 비약이 전혀 없다"[22]는 것을 알게 된다. 보네는 모든 유기체가 하나의 설계도에 따라 배치되면서도 그 속에서 다양성이 두드러지는 조화로운 방식으로 창조되었음을 확신한다. 매번 발생이 이루어질 때마다 유기분자들을 결합하게 해주는 동인으로서 상상의 인력도, 그 과정에 개입하여 미리 정해진 질서(ordre préétabli)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있는 우연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그저 "그 자체로 집중되고, 내려앉아, 접히고 또 접혀 있는 기관들이 여러 형태를, 여러 비율을 갖추고, 성체에서 갖게 될 기관들과 아주 다른 배치를 갖추고 있는"[23] 미리 형성된 배아를 가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의 철학에 기반한 보네의 관점은 동시대 자연사가 장 바티스트 로비네가 더욱 과감한 방식으로 확장했다. 보네가 식물계와 동물계의 경계를 문제삼는 것으로 그쳤다면 로비네는 그의 주저 『자연에 관하여』(1761-1766)에서 이를 광물계의 경계를 폐지하는데까지 나아갔기 때문이다. 『자연에 관하여』의 마지막 4권에서 로비네는 보네의 뒤를 이어 뷔퐁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뷔퐁은 "모든 것을 동물로 변모시킨 자연의 소설의 저자"[24]라는 것이다. 보네와 마찬가지로 로비네 역시 "지상의 창조의 모든 부분들을 포괄하는 동일한 일반적인 의도"를 확신한다. 그런 점에서 뷔퐁은 "자연의 법칙을 우연이라는 변덕으로 대체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세상의 원리가 단일성 혹은 단순성에 있음을 확신하는 로비네는 물질을 활동적인 물질과 비활동적인 물질로 구분한 뷔퐁의 이원론을 문제 삼는다. 이러한 물질 이원론은 자연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연관을 배제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로비네는 오직 살아있고 활동하는 물질만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런데 그에 따르면 살아있는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가 바로 선재하는 배아이며, 뷔퐁의 내적주형은 스스로 운동하고 활동하는 배아의 성장과 동일한 것이다.

---

21) Bonnet, *Considérations*, § CXXXVIII, *op. cit*., p.123.
22) Bonnet, *Contemplation de la nature*, *op. cit*., p.191.
23) Bonnet, *Considérations*, § CCCXXXVI, p.428.
24) Robinet, *De la Nature*, t. IV, Amsterdam, E. Van Harrevelt, 1766, p.94.

www.kci.go.kr

> 배아 자체가 아닌 다른 주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체들이 발육하기 시작할 때 흡수하는 모든 물질이 실제로 부어지는 틀이 바로 배아인 것이다. 성장하고 팽창하는 배아가 흡수한 모든 물질이 유기조직의 영역에 들어와 그 법칙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법칙을 따라 양분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지배적인 기계에 동화된다. 배아는 형성되어진 것이 아니고 스스로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배아는 창조주가 창조한 즉각적인 산물이다.[25]

모든 식물과 동물 존재들이 더 복잡하고 덜 복잡한 정도에 따라서 연쇄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보네처럼 로비네도 존재의 연쇄(la chaîne des êtres)의 입장에 동의한다. 광물도 이 연쇄의 한 말단을 이룬다. 그는 수정의 예를 들면서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수정은] 전체와 동일한 규칙적인 각추형의 무한히 작은 물질들이 반복되어 형성"된다. 그런데 수정의 형성 방식은 동물과 식물의 경계를 이루는 매개적인 존재인 폴립의 형성과정과 정확히 동일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폴립 역시 "폴립 모체와 동일한 무한히 작은 폴립들의 반복으로 형성"[26]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해나간다면 광물로부터 고등동물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모든 존재가 연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아있는 존재뿐 아니라 광물 역시 동일한 형성의 방식을 갖추고 있음이 증명된 이상, 관습적이고 인위적인 방식으로 종을 분류하고 개체들을 일정한 틀에 가두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바로 이런 이유로 로비네는 뷔퐁과 반대로 자연의 개체들을 고립시키고 서로 떼어 놓는 경계들을 폐지하고자 한다. "우리가 자연적인 질서에 부합하여 개체들을 분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실험을 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소위 종이라고 하는 것들의 경계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을지 모른다."[27]

---

25) Robinet, *De la Nature*, t. IV, *op. cit.*, p.137.
26) *Ibid.*, p.97.
27) *Ibid.*, pp.16-17.

www.kci.go.kr

Ⅳ. 디드로의 라이프니츠주의

보네와 로비네는 뷔퐁의 유기분자론과 내적주형 이론을 세심하게 논박하면서 자연의 모든 존재들이 인위적인 종과 계의 범주로 환원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종들과 계 사이에 이들 범주의 경계를 지우는 매개적인 존재들이 점차 발견될수록 존재들의 연쇄에 대한 그들의 입장은 더욱 확고해졌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러한 논의를 지난 세기 형이상학과 과학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배아의 선재이론과 배아에 미래의 배아들이 무한히 접혀 있다는 배아조립체설을 지지하기 위해 이용했다. 18세기 후반에 이렇게 다시 등장한 전성설 이론을 퇴행적이라고 해야할까? 일견 이들이 제시하는 체계는 동물의 발생을 암컷에 내재해 있는 난의 성장과정으로 파악했던 지난 세기 전성설의 논의로 후퇴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만 디드로는『자연의 해석에 대한 단상들』의 13절에서 "생식을 위해 분비되는 액체를 양성(兩性) 모두 공히 갖추고 있음이 밝혀졌다"[28]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후 이러한 입장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 특히 디드로는 동물의 발생을 선재하는 배아 이론에서 찾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반박하고 있다.『달랑베르의 꿈』에서 달랑베르가 디드로에게 "배아의 선재를 믿지 않느냐"고 묻자 그러한 이론은 "경험과 이성에 모순된다"[29]고 디드로가 잘라 말했음을 기억해보자. 그렇다면 그는 뷔퐁이 제시한 부모 양쪽에서 제공하는 생식액의 결합으로 특징 지워지는 배아 발생이론을 지지하는 것일까?

> 내가 수행한 실험에 따르면 암컷도 고환에서 형성이 시작되어 결국 선(腺) 조직으로 된 물질속에서 완전히 발육되게 될 생식액이 있다. 이것이 선 조직으로 된 물질의 끝에 존재하는 작은 구멍들을 통해 끊임없이 방울방울 듣고 흐르는데, 남성의 생식액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생식액에도 상이한 두 가지 방식으로 자궁 내에 들어올 수 있다. 첫 번째는 자궁 돌기 끝에 난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인데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인 것 같다. 두 번째는 생식액이 계속 끼얹어지고 그것으로 적셔질

28) DPV t. IX, p.38.
29) DPV t. XVII, p.97.

www.kci.go.kr

> 때 자궁 돌기의 막질 조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이다.
>
> 남성 생식액과 여성 생식액은 모두 동물의 몸을 이루는 모든 부분이 농축된 것으로, 남성 생식액은 수컷을 이루는 모든 부분이 농축되어 있고, 여성 생식액은 암컷을 이루는 모든 부분이 농축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두 생식액이 섞일 때 수많은 수컷과 암컷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진다[30].

그러나 디드로는『자연의 해석에 대한 단상들』의 마지막 부분에서 현단계 대단한 진보를 보았던 철학과 자연학에서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남겨진 '문제들'을 제시하면서 뷔퐁의 발생이론을 문제삼는다. 그가 제시한 문제들은 물질의 분할 가능성과 물질과 운동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디드로는 이 문제를 1770년 이후 그의 후기 작품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며, 운동이 물질의 본성임을 확증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자연의 해석에 대한 단상들』을 내놓은 1750년대에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 디드로는 뷔퐁이 물질을 '활동하는 물질(matière vivante)'과 '활동하지 않는 물질(matière morte)'로 구분[31]했던 것을 문제 삼는다. 요컨대 유기조직을 형성할 수 있는 물질과 그 힘이 결여된 물질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디드로는 단호히 뷔퐁의 물질의 구분을 거부하면서 뷔퐁보다 더 멀리 나아간다.[32] 한다. 여기서 우리는 디드로가 뷔퐁을 넘어서기 위해 라이프니츠의 '연속성의 원리'를 참조한다고 생각한다. 라이프니츠는 물질을 정지상태에 두는 힘(force d'inertie)이 운동의 결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지상태에 놓인 물질과 운동상태에 있는 물질의 구분을 폐지한 바 있다.[33]

---

30) Buffon, *Œuvres complètes*, éd. P. Flourens, t. I, pp.604-605.

31) "[…] il me paraît que la division générale qu'on devrait faire de la matière est matière vivante et matière morte, au lieu de dire matière organisée et matière brute ; le brut n'est que le mort, je pourrais le prouver par cette quantité énorme de coquilles et d'autres dépouilles des animaux vivants qui font la principale substance des pierres, des marbres, des craies et des marines, des terres, des tourbes, et de plusieurs autres matières que nous appelons brutes, et qui ne sont que les débris et les parties mortes d'animaux ou de végétaux […]"(*Ibid*., p.446).

32) Voir Jacques Roger, *Les Sciences de la vie*, *op. cit*., p.600.

33) Voir Marie-Noëlle Dumas, *La Pensée de la vie chez Leibniz*, Paris, J. Vrin,

www.kci.go.kr

> 물질적 실체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것을 그저 분할 가능한 것으로만 간주한다면 그 실체가 이루는 덩어리는 순수한 현상이고, 엄밀한 형이상학적 의미로 보자면 실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 하나의 실질적인 단위이며, 그 실체는 분할 가능하지 않고, 생성 가능하지 않고 변질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며, 발생과 부패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의 변형일 뿐이거나 반대로 큰 것의 변형에 불과하며, 더없이 극소량의 물질에 더미로 쌓여 있는 만큼 유기조직을 갖춘 무한한 피조물들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34]

라이프니츠는 아르노에게 보낸 편지에서 물질은 결국 살아있는(vivants) 실체들이 그 안에 무한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물질의 운동은 외부에서 온 자극과 충격의 소산이 아니라 물질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변형'의 과정으로 파악된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살아있으며,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유기적인 모든 것은 물질 속에 무한히 접혀있는 살아있는 실체들의 무한한 조직이다. 그는 아무리 작은 실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무한한 유기조직이 내포되어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이와 같은 연속성의 관점에서 볼 때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의 전통적인 삼분법의 경계도 사라지고 만다. 그렇다면 종과 계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가능케 한다는 뷔퐁의 내적 주형 이론은 허구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 주형은 형상의 원리인가? 주형이란 무엇인가? 실재하는 것인가 선재하는 것인가? 활동하거나 활동하지 않는 물질과 결합한 활동하는 분자가 갖는 에너지의 관념적인 한계, 모든 방향에서 발산하는 에너지와 모든 방향에서 작용하는 저항이 이루는 관계에 따라 결정된 한계라고 해야 할까? 실재하면서 동시에 선재하는 존재라면 그것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35]

발생 과정에서 종과 계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맹목적인 힘의 작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뷔퐁은 유기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을 일관된 방식으로

1976, p.99.

34) Leibniz, *Œuvres philosophiques*, t. I, éd. Paul Janet, Paris, Ladrange, 1866, p.682.

35) DPV t. IX, p.97.

www.kci.go.kr

세대를 거듭하여 배치하게 해주는 어떤 장치를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뷔퐁은 내적 주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이 유기체의 어느 부분에 있는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의 내적 주형이라는 가설은 물질이 운동을 시작할 때마다 나타나 그 운동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운동의 오류를 막아주는 선험적인 동인(動因)을 어쩔 수 없이 다시 끌어들이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뷔퐁의 이 개념은 지난 세기 반헬몬트와 슈탈이 같은 이유로 전제해야 했던 '영혼(l'âme)'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점에서 로비네가 뷔퐁이 물질을 활동하는 물질과 활동하지 않는 물질로 구분한 것을 문제삼으며, "활동하지 않는 물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을 때 그는 라이프니츠의 연속성의 원리를 발생의 기본 원리로 확증한 것이다. 뷔퐁은 물질의 결합을 가능케 하는 원인을 물질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두면서 발생을 복잡하고 모호하게 만들어 버렸다.

> 활동하지 않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형상이며, 물질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유기적이고, 활동적이고 살아있는 물질 그 자체로 충분히 설명된다. 모든 물질이 유기적이고, 활동적이고, 살아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가소성을 지닌 자연이며, 형성력을 갖춘 영혼이며, 길을 마련해주는 지성이며 하는 것에 더는 의존할 필요가 없다. 물질이 실제로 원시적인 그대로였다면 유기조직이 가능하지 않았을 물질을 그런 것을 통해 유기적으로 만들고자 했다면 말이다. 자연의 생명의 원리며, 활동의 원리는 배아의 활동 그 자체밖에 없다. 배아의 성장은 생산이라는 것을 단지 발육과 변형일 뿐으로 보는 보편적인 체계의 모든 현상을 구성한다.
>
> 활동하지 않는 물질은 실제 [동물의] 구조와 모순된다. 그것은 존재의 연쇄를 깨뜨리고 자연의 운행과 작용을 혼란에 빠뜨리고 말 것이다.[36]

로비네가 말하고 있는 배아는 이제 전 세기의 완전히 형성을 마치고 외부의 양분을 섭취하여 성장을 시작하게 되는 배아와는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그는 물질의 운동에 영혼이며, 지성이며 하는 모호한 형이상학의 개념을

36) Robinet, *De la Nature*, t. IV, op. cit., p.134.

www.kci.go.kr

배제하는 것이다. 자크 로제는 로비네가 뷔퐁의 내적 주형 이론을 선재하는 배아의 개념으로 대체해 버렸고, 이를 통해 뷔퐁이 제시한 종의 연속성과 항구성을 무너뜨렸음을 정확히 지적했다.[37] 물론 디드로는 로비네가 그의 배아의 선재 개념을 통해 천지창조 이래로 전능한 창조주의 의지를 증명하고자 했음을 모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디드로는 로비네가 이를 형이상학적인 질서의 실재로 선언하는 대신, 자연학의 내적 질서를 규명하는 것으로 만족했다는데 주목한다. 로비네와 할러는 신의 의지가 마련하는 '질서'를 존재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의 발생을 주재하는 생명 활동에 고유한 힘을 규명하는 것으로 그쳤다. 디드로가 기존 배아의 선재이론을 고집스럽게 거부했다면 그것이 생명 발생의 원리를 창조주의 의지의 문제로 지나치게 단순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러와 보네, 그리고 로비네에 이르는 18세기 후반의 논의는 비록 세계의 조화를 주재하는 창조주의 역량을 인정하고 있더라도, 정지상태의 물질(matière inerte)에서 살아 있는 물질로의 연속적인 이행을 전제했다는 점에서 디드로는 이들의 논의에 주목한다.

> 당신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알 속의 불활성 덩어리 안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성장을 기다리는 요소가 숨겨져 있다고 상상하든지, 아니면 지각할 수 없는 요소가 성장하는 도중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알 껍데기를 통해 스며들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공간을 점유하는 것일까요, 점유하지 않는 것일까요? […][38]

위의 인용문에서 디드로가 말하는 '숨겨진 요소'는 정지상태의 물질을 생명을 가진 물질로 이행하게 만드는 어떤 알 수 없는 원리의 다른 이름이다. 전통적인 배아의 선재이론에서는 이를 물질과는 구분되는 생명의 원리, 즉 영혼의 존재로 파악했으며, 디드로는 이런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 디드로는 할러의 이론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알껍데기에 스며드는 지각할 수 없는 요소"란 수컷의 생식액이 암컷의 배아에 작용하여 성장과 변형을 일으키는 원리 그 자체이다. 뒤이어 디드로

37) Voir Jacques Roger, *Les Sciences de la vie*, *op. cit*., p.648.
38) D**PV t.** XVII, p.105.

www.kci.go.kr

가 그 요소가 “공간을 점유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묻는 것은 그것을 데카르트가 주장하듯이 연장의 속성을 갖지 않는 영혼으로 볼 것이냐 연장의 속성을 갖는 물질로 볼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디드로는 할러를 따라 그것은 여전히 정지되어 있는 물질로부터 살아있는 물질로의 연속적인 이행을 가능케 하는 원리로 파악한다. 이런 점에서 할러와 비교해봤을 때 모페르튀와 뷔퐁은 여전히 형이상학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유기체와 생명체의 발생과 성장, 노화와 분해를 가능케 하는 고유한 원리를 찾는 데 있다. 할러는 물질에 감수성과 민감성을 도입하면서 이를 물질의 자율적인 운동을 가능케 하는 원리로 삼았다. 지난 세기 배아의 선재이론을 주장했던 이들처럼 완전히 형성을 마친 배아가 무한히 겹쳐 있다는 생각을 18세기 후반의 생리학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가장 작은 단위의 생명의 원리가 존재하며, 그 원리는 물질의 운동을 가능케 하는 감수성과 민감성을 그 속성으로 갖는다. 그러므로 할러의 ‘배아’는 더없이 가늘고 섬세한 섬유들이 모인 다발에 다름 아닌 것이다. 발생의 과정은 우연의 소산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원인들이 선택적으로 또는 운명적으로 이들 섬유다발에 작용하는 필연적인 과정에 다름 아니다.

> 인간 육체의 모든 단단한 부분은 더 밀착되거나 덜 밀착된 섬유들로 이루어져 있다(식물도 마찬가지이다) […] 단순한 섬유는 가장 얇은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 더 얇은 소섬유(小纖維) 다발이다. 단순한 섬유 다발이 속이 비어 있는 관을 형성할 때 이를 소섬유, 혹은 유기적 섬유라고 부른다 […]. 섬유는 감각능력이 있지만 머리카락에는 없다. 섬유가 근육섬유가 될 때는 민감성을 갖는다[39].

요컨대 디드로는 할러를 따라 유기체의 기본 단위로서 섬유다발을 고려하고 있다. 이 섬유다발은 감각능력을 갖추었으므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작은 살아있는 물질이다. 『달랑베르의 꿈』에서 보르되는 이 섬유다발이야 말로 “순수한 감각체계(un système purement sensible)”[40]라고 주장한다. 이

39) DPV t. XVII, p.339.
40) DPV t. XVII, p.145.

www.kci.go.kr

섬유다발의 성장과 훼손, 확장과 축소가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양성을 띠고 나타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보르되는 레스피나스 양에게 그녀가 최초의 "무른 섬유질로 된 무정형의 실체"[41]의 상태에서 성장해왔음에 주목하도록 한다. 그것은 인간의 모습을 전혀 갖지 못한 섬유다발에 불과했지만 내부의 조직 원리에 따라 발육하고 외부에서 온 물질과 동화해 나가면서 여러 계를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거쳐 이루어진 모든 발생 과정을 체현한 것이자,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진 신체의 부분들의 이완되고, 분리되고, 부패되는 자연의 순환에 참가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디드로가 발생을 섬유 다발의 확장으로, 죽음을 이들의 분리로 파악할 때, 그는 할러의 생리학과 보네와 로비네의 자연사 이론에 합류하는 것이다. 유기체의 요소들을 성장케 하고 발육케 하는 근본적인 단일성과 이 단일성이 발생과 성장의 과정에서 무한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때 디드로는 보네와 로비네의 배아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바로 이점이 라이프니츠의 "단일성에 포함된 다수성"[42]의 이론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배아가 되었던, 섬유가 되었던, 그 자체로 더 다양하거나 덜 다양한 방식으로 발육의 모든 가능성을 내재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이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디드로가 미완성으로 남겨둔 마지막 저작 『생리학 기초』에서 "나는 선재하는 배아들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배아들은] 존재들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그것은 발육의 결과로 이루어진 산물이다. 존재하지 않았지만 존재하기 시작하는 산물인 것이다. 그 산물이 연속적으로 확장되면서 처음 존재와 닮은 새로운 존재가 형성되는 것"[43]이라고 말한대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41) DPV t. XVII, p.148.
42) Leibniz, *Monadologie*, § 13, in *Discours de métaphysique, Monadologie et autres textes*, *op. cit*., p.222.
43) DPV t. XVII, p.432.

www.kci.go.kr

Ⅴ. 결론

우리는 디드로가 18세기 후반에 배아의 선재이론을 다시금 옹호했던 할러, 보네, 로비네의 입장으로 귀결한다거나, 우리가 앞에서 보여주었던 일련의 라이프니츠주의자들의 논의가 후기 디드로의 과학저작의 결론으로 수렴한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의 문제의식은 1740년대 후반에 윌리엄 하비의 실험을 토대로 배아의 선재이론을 후성설과 자연발생설로 과감히 대체했던 뷔퐁의 논의에 디드로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자 하는데 있었다. 1754년의 디드로는 『자연의 해석에 대한 단상들』에서 수세에 몰린 뷔퐁이 낡은 형이상학의 입장으로 회귀했다는 점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퇴행에 디드로는 라이프니츠의 이론을 참조하면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비록 당시 자연사 연구의 성과들은 이 문제를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겨두었지만, 디드로는 그의 백과사전 작업이 마무리되자마자 『달랑베르의 꿈』, 『물질과 운동의 철학적 원리』, 『생리학 기초』를 잇달아 작업하면서 그가 예전에 미해결상태로 남겨둔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들뢰즈가 『주름』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전성설이 단순한 계량적 다양성을 벗어남에 따라, 후성설이 잠재적이거나 가능적인 전성설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전성설은 후성설에 가까워진다."[44] 따라서 이 일련의 후기 저작에서 디드로가 할러, 보네, 로비네를 적극적으로 참조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고 하겠다. 물론 디드로는 지난 세기의 배아의 선재이론에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그러나 배아의 개념을 천지창조의 시기에 신의 손길로 완전히 형성을 마친 선험적인 존재를 확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기체의 조직 원리와 변형과 성장의 토대로 간주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디드로가 배아의 선재이론을 옹호하기 위해 라이프니츠가 사유한 발생이론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한다면, 그것이 뷔퐁의 체계에서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단

44) Deleuze, *Le Pli*, Eds. de Minuit, 1988, p.15.

www.kci.go.kr

일성과 다양성의 역동적인 관계와 종과 계를 구분하는 인위적인 경계를 해체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디드로가 내세운 '절충주의(éclectisme)'의 방법이며, 그가 라이프니츠를 수용하는 과정도 이 독일철학자의 절충주의에 대한 디드로의 평가에서 기인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45]

45) Diderot, art. Eclectisme, ENC t. V, p.283a.

www.kci.go.kr

참고문헌

Andrault, Raphaël, *La Vie selon la raison. Physiologie et métaphysique chez Spinoza et Leibniz*, Paris, Honoré Champion, 2014.

Belaval, Yvon, *Etudes sur Diderot*, PUF, 2003.

Bonnet, Charles, *Considérations sur les corps organisés*, Fayard, Corpus des œuvres de philsophie, 1985.

_____, *Contemplation de la nature*, Amsterdam, Marc-Michel Rey, 1769, 2 vol.

Bourguet, Louis, *Lettres philosophiques sur la formation des sels et des crystaux*, Amsterdam, François L'honnré, 1729.

Buffon, Georges de, *Œuvres complètes*, éd. Pierre Flourens, Paris, Garnier Frères, 1853-1855, 12 vol.

Cherni, Amor, *Epistémologie de la transparence sur l'embryologie de A. von Haller*, Paris, J. Vrin, 1998.

Diderot, Denis, *Œuvres complètes*, éd. H. Dieckmann, J. Proust et J. Varloot, Paris, Hermann, 33 vol. parus.

Deleuze, Gilles, *Le Pli*, Eds. de Minuit, 1988.

Duchesneau, François, *La Physiologie des Lumières. Empirisme, Modèles et Théories*, Martinus Nujhoff Publishers, La Hague, 1982.

_____, *Les modèles du vivant de Descartes à Leibniz*, Paris, J. Vrin, 1998.

_____, *Leibniz, le vivant et l'organisme*, Paris, J. Vrin, 2010.

Duprey, Laura, <L'Idée de chaîne des êtres, de Leibniz à Charles Bonnet>, *Dix-Huitième siècle*, n° 43, 2011, pp.617-637.

Haller, Albrecht von, *Eléments de Physiologie*, trad. Bordenave, Paris, Guillyn, 1769.

_____, *Réflexions sur le systême de la génération, de M. de Buffon*, Genève, Barrillot & fils, 1751.

_____, *Sur la formation du coeur dans le poulet sur l'œil, sur*

www.kci.go.kr

la structure du jaune, Lausanne, Marc-Michel Bousquet, 1758, 2 vol.

Fauvergue, Claire, *Diderot, lecteur et interprète de Leibniz*, Paris, Honoré Champion, 2006.

Leduc, Christian (et al.), *Leibniz et Diderot. Rencontres et transformations*, Paris, J. Vrin, 2015.

Pépin, François, *La Philosophie expérimentale de Diderot et al chimie. Philosophie, sciences et arts*, Paris, Classiques Garnier, 2012.

Proust, Jacques, *Diderot et l'Encyclopédie*, Paris, Albin Michel, 1995.

Roger, Jacques, *Les Sciences de la vie dans la pensée française au XVIII*^{e} *siècle*, Paris, Albin Michel, 1994.

www.kci.go.kr

ABSTRACT

Diderot in the tradition of leibnizian philosophy

Lee, Choong Hoon

It is well known that philosophers of the 18th century were under the Leibnizian influence, of which fundamental thoughts are summed up as such: all phenomena in nature are related to each other. According to Leibniz, knowledge of nature is linked, and new discoveries fill missing links that remain insoluble and incomplete, until then. So, it is undeniable that the idea of the *Encyclopédie* led by Denis Diderot, is based on the optimistic epistemology of Leibniz.

It should be noted that Diderot was leibnizian, not on mathematics and metaphysics, but on contemporary experimental sciences. The publisher of the *Encyclopédie* reproduces, in his bold system of materialistic atheism, leibnizian thoughts: beings are chained by degrees to each other, and no one is completely like another.

Our study focuses on the recurring notions of Leibniz, in Diderot's works concerning natural history and natural philosophy. Diderot continually criticizes the preformation and embedding of germs that have been widespread among philosophical and scientific scholars, since the last century. It should not be forgotten, however, that our author also criticizes contemporary naturalists, Buffon and Maupertuis, for having always used equivocal notions, and that he tries to positively welcome contemporary Leibnizian naturalists: Bourguet, Haller, Bonnet, and Robinet.

What Diderot wanted to draw from the Leibnizians of his time, is the idea of a chain of beings in nature, including minerals. With this idea, he enterprisingly accepts the principle of organization, and development of organized bodies. He emphasizes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unity and variety, and he

www.kci.go.kr

questions limits that artificially classify species and reigns in nature.

Key Words : Diderot, Leibniz, Louis Bourguet, Albrecht von Haller, Charles Bonnet, Jean-Baptiste Robinet, preformation, epigenese, chain of being, identity of indiscernibles

▌논문접수일 : 2019. 05. 10
▌심사완료일 : 2019. 06. 01
▌게재확정일 : 2019. 06. 04

www.kci.go.kr